

##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적용 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 서울시 광진구, 송파구의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

노성진\* · 김태현\*\* · 김홍규\*\*\*

### An Analysis of Recognition on Application Elements of Local Identity in Urban Public Design

- Focused on Pedestrian Roads in Kwangjin-gu and Songpa-gu, Seoul -

Sung Jin Noh\* · Tae Hyun Kim\*\* · Hong Kyu Kim\*\*\*

**요약** : 본 연구는 도시와 도시에 적용되는 지역 정체성 요소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것인가라는 기본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자체의 정체성 요소는 각 지자체의 차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역사,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적용 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시 공공디자인에 적용된 지역 정체성 요소에 대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를 설문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 형태, 색채 등을 구성하는 '형태방식', 디자인적 측면과 회화적 측면을 구성하는 '표현방식'에 있어서 지자체 간 유의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주제어** : 도시 공공디자인, 지역 정체성, 지역 이미지 통합, 공공시설물, 도시경관

**ABSTRACT** : This study initiates with a basic question that what kind of relationship does exist between the city and its elements of local identity. In urban public design field, the element of local identity in local government is applied as an important resource in order to maintain differentiation among each local government.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on how the local government interprets and applies its local identity which stands for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cognition on elements of local identity in urban public design.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cognitive differe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on elements of local identity in urban public design targeting on local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f recognition on 'method of induction' composing of forms, colors, and so on and 'method of representation' constituting design and painting aspects.

**Key Words** : urban public design, local identity, local image integration, public facilities, urban landscape

\* 한국조형예술원 교수(Professor, The Korea Institute of Art & Design)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thkim1981@naver.com, Tel: 031-811-7614)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 I. 서론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칭함)들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역사, 문화, 경제적 배경 등 지자체가 가진 인문학적 여건을 토대로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될 요소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었다.

현재 도시 공공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도시에서 장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도시 공공디자인의 도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체성이 가미된 도시 공공디자인은 긍정적인 도시이미지와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공동체 의식과 친밀감, 경제적 효과와 도시경쟁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공환경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통합적 정책 결정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 디자인 개발은 그만큼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 요소를 적용한 도시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지자체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정체성 요소가 적용된 도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자체의 주민들, 관계공무원, 전문가 인식을 분석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계획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강

을 서로 가운데 두고 강남과 강북에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 송파구와 광진구의 보행자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 차원에서 설치된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 관련 공직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도시 공공디자인의 개념

‘도시디자인(Urban Design)’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후반 북미에서 전개되었던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에서 파생되었다. 또한 지금은 공공디자인을 주로 ‘시빅디자인(Civic Design)’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도시디자인’이 공공디자인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라는 단어에 이미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논문(고필중, 1997; 최범 외, 2007; 정희정, 2009; 황선영, 2008)과 기타 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9)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등에 나타난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문화적, 공공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어가 되는 도시 공공디자인에서의 도시공간은 시간의 무대가 되기도 하며, 장소와 가치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시간과 장소는 도시공간에서의 정체성 형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작용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작용을 한다.

## 2. 도시 공공디자인과 지역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은 “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답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동일성이라는 국면의 정체성인데, 동일성은 다시 변화에 대한 연속성과 어떤 대상에 대한 동일화에서 나온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가 도시 정체성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표현하는 모체는 도시를 구성하는 장소가 된다(하영미, 1996).

박경윤(2010)은 장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 등을 제시하였다. 백승우(2003)는 ①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② 주민들의 정주성과 연대식의 회복 및 지역사회 문화형성 ③ 인공시설의 건설과정 등을 지역 정체성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오성훈·성은영(2008)에 따르면 도시공간의 차별화된 정체성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역사 문화자원의 경험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미지는 “해당지역의 문화적 상징체계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지역의 사회적 동일시와 문화적 독특성을 획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지역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지식경제부(2007)가 실시한 산업디자인 통계에 의하면 광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25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지역 이미지 통합계획을 개발한 지자체는 192곳(76.8%)이다. 지역 정체성을 감안한 캐릭터 개발 아이템을 개발한 지자체 중 1개의 종류를 개발한 지자체는 169곳(67.6%)이고 2종류

이상 5종류까지를 개발한 지자체는 23곳(9.2%)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정체성과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쟁요건으로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도시 공공디자인과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사례로서 주영정(2004)은 가로경관의 색채에 대한 보행자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통계적 평가모형을 통해 인사동과 압구정동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가로경관색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백호정(2007)은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성별, 연령, 방문횟수, 전공, 방문목적에 따른 개인특성이 가로경관에 대한 만족도, 이미지, 랜드마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형성은(2009)은 버스 정류장에서의 이용자 행동유형, 정류장의 특성,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선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류장 디자인을 정류장 위치, 이용자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허성철 외(2009)는 버스 쉼터, 벤치, 휴지통의 선호 이미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지역 정체성과 관련하여 송민정·이윤미(2006)는 공공 디자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공공시설물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득곤(2004)은 도시의 이미지와 각 이미지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그와 연결해 가로 경관의 정체성과 가로 시설물이 가로 경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 설명인자를 파악하였다. 전민석(2010)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론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디자인평가(Post-Design Evaluation, PDE)를 활용하였다.

김창수(2010)에 따르면 지역 정체성은 근대 도시의 내적 위기와 도시발전을 통해 나타나게 되며, 특히 획일화된 도시공간에서의 개성, 장소성, 정취감각 상실과 거주이동 빈도 증가 등을 통하여 정주의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Matsuoka and Kaplan(2008)은 인간과 외부도시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90편의 문헌고찰을 통해 도시경관디자인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도시 거주자들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분석방법론과 관련하여 Pugalis(2009)는 대상지 분석과 함께 보행자 인식 설문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도시공공공간의 디자인과 문화적 활성화 정도, 경제적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나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이미지의 평가

의 차이를 검증하고, 디자인 평가와 관련된 방법론을 제시하여 가로경관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분석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지역 정체성의 반영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평가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이 도시 공공디자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 도입형태 및 표현방식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범위

#####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로서 한강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적 중첩이 있는 송파구와 광진구를 선정하였다. 송파구와 광진구는 1988년 지방 자치제 이후 20여 년 동안 독자적 도시환경을 구축해 오고 있고 인구와 면적, 경제 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도시 공공디자인의 인식조사 대상지로 삼았다.

광진구는 광나루 문화, 고구려 보루, 뚝섬 나루

	자전거보관대	안내 및 통행시설물	보호펜스	관리시설물
광진구				
	가림막	가림벽	상징조형물	보호펜스
송파구				

〈그림 1〉 광진구-송파구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례

터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광진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고구려’를 테마로 한 강변역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송파구는 2010년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지주로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신천역에 이르는 980m 구간 도로의 공공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통합, 개선하고 도로변 광고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천년의 뜰’이라는 제목의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는 ‘송파에서 오랜 역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온한 풍토색’을 지칭하는 등 역사성과 예술성을 반영한 색채, 질감, 재료, 선과 형태 등을 건축, 조경, 조명, 광고물, 보행공간, 시설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분석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광진구와 송파구의 주요 도로에 나타난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방식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도로는 개별로 분할된 공간들을 연결하여 도시의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선적 공간이고, 광장은 도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면적 공간이다. 이러한 도로 및 광장을 통하여 도시의 연속성 있는 이동과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며 도시의 공공성이 증진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보행이 가능한 도로와 광장의 공공시설물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분석의 범위로 설정한 주요도로는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서 자전

거도로 및 자동차도로와 접한 보행자 도로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중 전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큰 도로에 면해 있으며 각 지자체를 관통하고 있는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가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다.

지자체별 주요도로의 범위는 광진구의 경우 구 의로와 천호대로, 능동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그 지역에 면해 있는 도로이며, 송파구는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로,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과 그 지역이 면해 있는 도로, 그리고 각 도로의 교차점 광장, 도시구조물을 본 연구의 주요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 중 뚝섬과 올림픽대로를 잇는 구의로는 종점인 구의동에서 유래한 왕복 6차선 도로로 1978년 지정되었고 대부분 하천을 복개하여 만들어졌다. 복정역과 잠실대교를 잇는 왕복 10차선 도로인 송파대로는 1972년 지정된 송파로가 1984년 송파대로로 변경된 것으로 2008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다.

연구를 위한 주요 분석대상은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로 분류 항목 중에서 ‘공공시설물’로 한정하여 조사 및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시각으로 쉽게 접하게 되는 시설들 중 육교, 교량 등 상대적으로 타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구조물은 1차적으로 배제하였고, 방음벽, 신호등주, 조명등주 등 지역 정체성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는 요소를 2차적으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항목들 중 도로부분은 통행시설물, 보호펜스, 관리시설물, 가림막 및 가림벽 등을 포함하는 보행가로와 자전거 보관대를 포함하는 자전거 도로로 구분하고 광장의 경우 상징 조형물과 벽화 등 7가지 공공시설물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분석대상 공공시설물 목록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대분류	소분류	
도로	보행가로	통행시설물, 보호펜스, 관리시설물, 공사장 가림막, 가림벽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광장	경관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근린광장, 건축물부설광장	상징조형물
		벽화

## 2. 변수 및 가설 설정

### 1) 변수 설정

지자체에 적용된 도시 공공디자인의 시설별 도입형태는 크게 ‘형태방식별 구분’과 ‘표현방식별 구분’ 두 가지 변수로 분류된다. ‘형태방식별 구분’은 형태와 색채 위계 순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형태는 원형과 응용으로 분류되고 색채는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구분된다. ‘표현방식별 구분’은 회화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면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 회화적 측면은 2D(평면그래픽)와 3D(입체조형)로 분류되며 2D에서는 원화/기호화/간략화(단순화) 단계로 분류된다. 3D에서는 독립형 조형과 부조조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적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수치로 규명할 수 없는 이미지로서, 변수가 되는 용어의 이해도에 따라 해석이 일부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수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 2〉, 〈표 3〉과 같이 각 변수에 대해 기존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sup>1)</sup>

###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개의 연구 가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가설그룹(H1)은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가설그룹(H2)은 도로주변 공공 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다. 세 번째 가설그룹(H3)은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위와 같은 가설들의 전제로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지자체별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각 가설그룹 별 세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H1-1: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1\_2).

H1-2: 해당 지자체의 지역 정체성의 역할의 중요성에서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2\_1).

1)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의 구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성진(2011) 참조

〈표 2〉 도시 공공디자인 도입형태: 형태방식별 구분

변수분류	내용 설명
형태(원형) Archetype	유·무형적 형태에 있어서 원래의 요소를 변형시키지 않는 구체적 형태이거나 비구상적 이미지를 말하며,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형태(응용) Application	유·무형적 형태에 있어서 원래의 요소를 상황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는 구체적 형태이거나 비구상적 이미지를 말한다.
색채(유채색) Chromatic	물체의 색 중에서 색상이 있는 색으로서 개개의 유채색은 색상·명도·채도라고 하는 요소에 의해서도 분류되는데 어떤 색상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은 그 색상 중에서 가장 순도(純度)가 높은 색이라는 의미에서 순색(純色)으로 구분한다.
색채(무채색) Achromatic	백색·회색·흑색에 이르는, 채색이 없는 물체색(物體色)의 총칭으로서 유채색에 대응되는 말로, 감각상 색상·채도(彩度)가 없고 명도(明度)만으로 구별되는 색채를 말한다.

〈표 3〉 도시 공공디자인 도입형태: 표현방식별 구분

변수분류	내용 설명
디자인 (Design)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서 회화를 근간으로 한 실용적 표현경향 때문에 실용 예술이라고도 한다.
회화 (Painting)	예술의 총체적 요소이며 종이·패널·유리·비단·캔버스 등의 2차원적 평면이나 벽 등 특정한 장소에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한 조형예술로서 순수예술이라고도 한다.
평면 (2Dimension)	2차원으로 종이와 같이 평평한 지면을 생각할 수 있다. 점이나 직선과 더불어 무정의용어(無定義用語)로서 입체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입체 (3Dimension)	3차원의 현상으로서 기하학적 대상으로 공간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원화(원형) (Fundamental form)	유·무형적 형태에 있어서 원래의 요소를 변형시키지 않는 구체적 형태이거나 비구상적 이미지를 말하며,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기호화 (Signification)	사람의 지식·의지·감정을 어떤 물리적 방법에 의해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형식이다.
간략화(단순화) (simplification)	미술에서 자연자체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형태나 빛깔을 간결한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의미에서 약화, 단순화 용어에서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질서와 규범적 정서를 담고 있다.
부조 (Relief)	평평하게 표현된 점에서는 회화에 가까우나 입체적인 감각으로 표현된 점에서 조각의 일종이다.
조형 (3D Artwork)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든 사물을 말하며 조형은 공간에 존재하는 유형적 형태 자체를 의미한다.

H1-3: 해당 지자체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3\_1).

H2: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

H2-1: 광진구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은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광진구 Q5\_1~14\_3).

H2-2: 송파구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은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송파구 Q5\_1~14\_3).

H3: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Q3\_3~12).

###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의 질문형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조사단계로, 무작위 가상응답자 5명을 선정하여 조사 방식과 설문지 질문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Pilot Study로써 디자인관련 전공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표본 집단 10명을 선정하여 본 설문조사(3차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두 단계를 거치면서 조사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3차 설문조사단계에서 광진구와 송파구 각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일반인 그룹, 지역전문가 그룹, 관련 공직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 4>와 같이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 그룹, 관련공직자 그룹으로 나누고, 일반인 그룹은 설문조사 방식에 따라 지역일반인 그룹 A와 지역일반인 그룹 B로 나누었다. 지역일반인 그룹A는 학력에 구분 없이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10~20

대, 30~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해당 연령별로 34명씩 남녀 각각 17명씩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한 지자체에서 102명, 광진구와 송파구를 합하여 총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지역일반인 그룹 B는 각 지자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로 학력을 한정하고, 일반인 그룹 A와 마찬가지로 각 연령대별로 10명씩을 추출하였다. 따라서 한 지자체에서 남, 녀의 구분 없이 30명 남녀 각각 15명씩, 광진구와 송파구를 합하여 총 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디자인 관련 전공자로 학력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하며, 인터뷰 방식으로 남녀의 구분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각각 10명을 추출하여 총 20명을 조사하였다.

관련 공직자 그룹은 각 지자체의 도시 공공디자인 및 도시,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 전문가 그룹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남녀에 구분 없이 각 10명씩, 광진구와 송파구를 합하여 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광진구와 송파구의 각 지자체의 도시 공공디자인 시설물과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응답자는 자신이 속하는 지자체에 대한 것만

<표 4> 설문대상 그룹 별 표본 수

그룹명	그룹설명	각 지자체 별 표본수(명)				총 표본수(명)
		10~20대	30~40대	50대 이상	합계	
지역일반인 그룹A	일반주민	34	34	34	102	204
지역일반인 그룹B	3년 이상거주자 중 대졸이상	10	10	10	30	60
전문가 그룹	디자인관련 전공자(석사이상)	10			10	20
관련공무원 그룹	각 지자체관련 공무원	10			10	20

을 답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광진구와 송파구의 공통질문사항으로 각 지자체의 현장사례를 7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속한 지역과 타 지역에 대한 것을 모두 답하게 하여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4. 분석방법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인식이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그룹 H1과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그룹 H2의 검증을 위해 필요성, 중요성, 만족도 및 반영정도 평가 점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그룹 H3의 검증을 위해서는 모든 관측변수들이 범주형 집단변수들일 때 사용되는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 분석 방법인 교차표(Cross tabulate) 분석을 통한 동질성 검정(Test of homogeneity)을 실시하였다. 교차표 분석을 위한 통계량으로 피어슨 카이제곱 검정값(Pearson Chi-square statistics)을 이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설문분석 결과

- 1)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인식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의 필요

성에 대해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필요함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일반인 그룹에서는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인 그룹 내에서 세대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분석되었고, 지역별로는 송파구보다 광진구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지역 일반인 그룹 B가 상대적으로 일관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정체성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룹이 일반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일반인 그룹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가운데, 광진구 그룹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지역 정체성 요소적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모든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하는 가운데 송파구가 상대적으로 만족을 표시한 비율이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만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 2) 시설별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

〈표 5〉는 조사대상자들이 송파구와 광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징조형물, 공사장 가림막(가림벽), 도로변 벽화, 관리시설물, 통행시설물, 보호펜스,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설치물에 대해 부과한 점수를 모두 합산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대별, 그룹별, 지역별로 송파구와 광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설치물에 대한 만족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각 문항에 부여한 점수의 평균점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대부분 3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만족도

〈표 5〉 시설별 지역 정체성 반영정도에 대한 응답자 그룹별 평가 점수의 평균

구 분	질적그룹		일반인 그룹A		구 분	질적그룹		일반인 그룹A	
	송파	광진	송파	광진		송파	광진	송파	광진
송파구 10대 20대	2.2	1.6	3.2	2.6	광진구 10대 20대	2.1	1.5	3.0	2.4
송파구 30대 40대	2.2	1.7	2.9	2.6	광진구 30대 40대	2.0	1.6	2.8	2.3
송파구 50대 이상	2.8	2.4	3.1	2.9	광진구 50대 이상	2.8	2.4	2.8	2.0

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가운데 송파구의 공공설치물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송파구 주민이 부여한 송파구의 점수는 광진구 주민이 부여한 송파구의 점수보다 높은 반면 광진구 주민이 부여한 광진구의 점수는 송파구 주민이 부여한 광진구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광진구 주민의 광진구 시설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나이가 어릴수록 송파구와 광진구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3)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에 대한 인식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일관되게 지지했고, 이어서 상징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인 그룹에서도 물론 조화를 중요한 요소라고 지지했으나 조화 이외에도 크기나 색채가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무원 및 전문가 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크기를 꼽았으나 일반인 그룹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크기뿐만 아니라 재료를 꼽은 경우도 많았다.

## 2. 가설검정 결과

각 가설그룹별 t-test 및 카이제곱 검정결과 및 검정 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설그룹 H1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의 필요성(H1-1), 해당 지자체의 지역 정체성 역할의 중요성(H1-2), 해당 지자체의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만족도(H1-3)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을 위한 t-test 결과, t값에 근거한 유의확률은 모두 0.01미만으로 연구가설(H1-1, H1-2, H1-3)은 채택되었다. 즉,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도시 공공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지역 정체성 역할의 중요성,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구체적으로 송파구의 평균이 광진구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에 대해 송파구 응답자들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 즉, 중요성이나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역사, 문화적 배경과 지자체별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이 지자체별 인

〈표 6〉 가설그룹 H1: t-test 검정결과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결 론
H1_1 도시 공공디자인	Q1_2	송파구	114	3.147	1.229	5.890	0.000	송파구>광진구
		광진구	131	2.336	0.865			
H1_2 지역 정체성 중요성	Q2_1	송파구	114	3.053	1.196	3.610	0.000	송파구>광진구
		광진구	131	2.543	0.983			
H1_3 도입형태 만족도	Q3_1	송파구	114	2.751	0.928	2.800	0.006	송파구>광진구
		광진구	131	2.412	0.960			

〈표 7〉 가설그룹 H2-1: 광진구 t-test 검정 결과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유의확률 (양쪽)	결 론
						평균	표준편차			
상징(입체) 조형물	광진구	Q5_1_3	2.084	131	.920	-1.260	1.345	-10.718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2_3	3.344	131	.935					
공시장 가림막, 가림벽	광진구	Q5_3_3	2.321	131	1.040	-.634	1.670	-4.343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4_3	2.954	131	1.073					
벽화	광진구	Q5_5_3	2.374	131	1.105	-.527	1.756	-3.434	.001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6_3	2.901	131	1.066					
관리 시설물	광진구	Q5_7_3	1.969	131	1.037	-.931	1.609	-6.626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8_3	2.901	131	1.101					
안내 및 통행 시설물	광진구	Q5_9_3	1.817	131	.901	-1.160	1.451	-9.154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0_3	2.977	131	1.063					
보차 경계 펜스	광진구	Q5_11_3	1.908	131	.996	-1.046	1.529	-7.831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2_3	2.954	131	1.051					
자전거 거처대	광진구	Q5_13_3	1.794	131	.966	-.947	1.516	-7.148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4_3	2.740	131	1.167					

식의 차이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음을 함의하고 있다.

2) 가설그룹 H2

가설 H2는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로서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의 도로주변 공공시설물 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광진구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은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는 가설(H2-1)의 검증을 위한 t-test 결과 t값에 근거한 유의확률은 모두 0.01 미만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연구가설(H2-1)은 채택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송파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설(H2-2)도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의확률이 0.01 미만으로 채택되었다(〈표 7〉, 〈표 8〉 참조).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송파구는 자체평가와 광진구평가에서 송파구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광진구는 상대적으로 송파구를 더 높게 평가 하는 것을 보면, 즉흥적 판

〈표 8〉 가설그룹 H2-2: 송파구 t-test 검정 결과

구 분			평균	N	표준편차	대응차		t	유의확률 (양쪽)	결 론
						평균	표준편차			
상징(입체) 조형물	광진구	Q5_1_3	2.714	114	.907	-.667	1.019	-6.984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2_3	3.380	114	.896					
공사장 가림막, 가림벽	광진구	Q5_3_3	2.512	114	.960	-.540	1.005	-5.742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4_3	3.053	114	.976					
벽화	광진구	Q5_5_3	2.574	114	1.003	-.267	1.056	-2.696	.008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6_3	2.841	114	.965					
관리 시설물	광진구	Q5_7_3	2.114	114	.870	-.515	1.049	-5.246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8_3	2.630	114	1.066					
안내 및 통행 시설물	광진구	Q5_9_3	2.219	114	.984	-.489	1.041	-5.010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0_3	2.708	114	.993					
보차 경계 펜스	광진구	Q5_11_3	2.406	114	.974	-.496	1.064	-4.974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2_3	2.902	114	.986					
자전거 거처대	광진구	Q5_13_3	2.175	114	.934	-.646	1.063	-6.484	.000	송파구>광진구
	송파구	Q5_14_3	2.821	114	.924					

단이나 감성적 판단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3) 가설그룹 H3

보행자 도로상의 지역 정체성 요소 도입형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Q3\_4~12)에서 지자체와 도입형태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값에 근거한 유의확률이 모두 0.05 미만으로 나타나 지자체별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9〉 참조).

지역 정체성 도입형태에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시 공공디자인의 객관적 시각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질적 적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 공공디자인에 적용된 지역 정체성 요소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 공무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적용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도시 공공디자인에서 지역 정체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가설 항목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결코 획일적이거나 무관심, 무감각적인 평가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대상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에밀 더케임(Emile Durkheim)이 “도시공간은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밀착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요구의 결과이다”(권영걸, 2009)라고 말한 것처럼 도시공간은 개개인의 소통과 관계를 나누

〈표 9〉 가설그룹 H3: 카이제곱 검정 결과

구분	지 자 체						계	X <sup>2</sup> /p	
	송파구			광진구					
	빈 도	기대빈도	지자체의%	빈 도	기대빈도	지자체의%			
Q3_3	원 형	14	32.6	12.3%	56	37.4	42.7%	28.6%	43.439/ 0.000
	절 충	49	50.3	43.0%	59	57.7	45.0%	44.1%	
	응 용	51	31.2	44.7%	16	35.8	12.2%	27.3%	
Q3_4	원 형	13	30.2	11.4%	52	34.8	39.7%	26.5%	40.955/ 0.000
	절 충	44	47.5	38.6%	58	54.5	44.3%	41.6%	
	응 용	57	36.3	50.0%	21	41.7	16.0%	31.8%	
Q3_5	회화적 표현	29	54.6	25.7%	89	63.4	67.9%	48.4%	43.417/ 0.000
	디자인적 표현	84	58.4	74.3%	42	67.6	32.1%	51.6%	
Q3_6	사 진	40	54	38.5%	81	67	62.8%	51.9%	13.653/ 0.000
	그 립	64	50	61.5%	48	62	37.2%	48.1%	
Q3_7	캐릭터	13	19.3	11.8%	29	22.7	22.5%	17.6%	20.268/ 0.000
	엠블럼	34	35.9	30.9%	44	42.1	34.1%	32.6%	
	Mark	14	20.7	12.7%	31	24.3	24.0%	18.8%	
	로 고	31	21.2	28.2%	15	24.8	11.6%	19.2%	
	표현절제	18	12.9	16.4%	10	15.1	7.8%	11.7%	
Q3_8	2D표현	43	54	39.4%	75	64	58.1%	49.6%	8.256/0.004
	3D표현	66	55	60.6%	54	65	41.9%	50.4%	
Q3_9	무 채 색	38	27.3	33.9%	21	31.7	16.2%	24.4%	10.31/0.001
	유 채 색	74	84.7	66.1%	109	98.3	83.8%	75.6%	
Q3_10	원화단계	9	30.7	8.0%	57	35.3	43.8%	27.2%	48.972/ 0.000
	약화단계	18	20.9	15.9%	27	24.1	20.8%	18.5%	
	간략화단계	40	30.7	35.4%	26	35.3	20.0%	27.2%	
	기호화단계	46	30.7	40.7%	20	35.3	15.4%	27.2%	
Q3_11	무채색	10	14.8	9.0%	22	17.2	17.1%	13.3%	15.797/ 0.000
	물성색	67	74	60.4%	93	86	72.1%	66.7%	
	유채색	34	22.2	30.6%	14	25.8	10.9%	20.0%	
Q3_12	부조조형	37	45.6	34.3%	63	54.4	48.8%	42.2%	5.122/0.024
	독립형조형	71	62.4	65.7%	66	74.6	51.2%	57.8%	

는 바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도시공간과 지자체에 적용되는 지역 정체성 요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 환경의 자원으로서 주민의 인식과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 정체성이 가미된 도시 공공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그 가치를 발굴하고 적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치의 확인을 통해 각 지자체는 이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접근방법이나 인문

학적 사려들이 갖추어지기 전에 준비가 미약한 상태로 시작되어, 그에 따른 질적인 결과에 대한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도시 공공디자인이 이제 그 인식의 태동 단계를 넘어 실행단계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이라는 요소가 기업에서 브랜딩 개념과 같이 도시 공공디자인과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 정체성 요소는 도시에서 매력적인 조형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표 10> 가설검증 분석결과 종합

가 설	검증 결과	연구 결 과
H1-1: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지역정체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1_2, Q2_4)	○	Q1_2의 질문은 송파구>광진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지역정체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H1-2: 해당 지자체의 지역정체성의 역할의 중요성에서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2_1)	○	Q2_1의 질문은 송파구>광진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정체성의 역할의 중요성에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설 H1-2은 채택되었다.
H1-3: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지역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자체별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Q3_1)	○	Q3_1의 질문은 송파구>광진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지역정체성 요소 적용에 대한 만족도에서 지자체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가설 H1-3은 채택되었다.
H2-1: 광진구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은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광진구 Q5_1~14_3)	○	Q5_1~14_3의 질문에서 송파구>광진구로 나타났듯이 광진구주민들도 송파구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역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사실 H2-1은 채택되었다.
H2-2: 송파구 주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은 도로주변 공공시설물들의 지역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송파구 Q5_1~14_3)	○	Q5_1~14_3의 질문에서 송파구>광진구로 나타났다. 즉, 송파구 주민들도 자체지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역정체성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해당 지자체와 타 지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가설 H2-2은 채택되었다.
H3: 지자체별로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정체성 도입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Q3_3~12)	○	Q3_3~12모든 항목에서 ‘지자체와 관련이 있다’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역정체성 도입형태의 분포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는 가설 H3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지역 정체성의 적용은 화려함과 규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도시 공공디자인에 지역 정체성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과 공무원, 지자체 간 인식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판단보다는 순간적 느낌으로 도시를 이해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지역 정체성 요소로 환원시켜 도시의 인상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도

입요소를 표현방식과 형태방식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요소에 대한 인식의 정량화를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역 정체성 요소를 7개 공공시설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어서 더 넓은 범위의 내용이나 잠재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단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무원이 대상이 되므로 서울시 전체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유구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통해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도시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향후 지역 정체성 요소 적용이 어

떻게 사람들을 위한 소통과 관계의 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필중, 1997, 『거리환경디자인』, 서울: 미진사.  
 권영걸, 2009, 『공공디자인강좌』, 서울: 가인디자인랩.  
 김득근, 2004, “도시가로 시설물의 정책과 지역이미지 정체성 표현연구”, 『조형연구소 논문집』, 9(1): 26~48.  
 김창수, 2010, 『인천의 문화 정체성과 도시 발전전략』, 인천: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주최 제1차 지역문제 세미나.  
 노성진, 2011, “도시 공공디자인의 지역 정체성 적용 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시 광진구, 송파구의 보행자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윤, 2010, “렐프의 장소론을 기반으로 한 현대 가로 경관 장소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백승우, 2003,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호정, 2007, “개인특성이 가로경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송민정·이윤미, 2006, “지역 정체성을 살린 가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21(0): 67~78.  
 오성훈·성은영, 2008, 『공간정책의 인문학적 기초조성을 위한 연구(1)』,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민석, 2010, “사후디자인평가(PDE)를 활용한 디자인서울거리공간 및 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희정, 2009, “공공디자인 평가척도의 추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영정, 2004,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도시가로 경관 색채 선호도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식경제부, 2007, 『산업디자인통계2007』.  
 최범·오창섭·정강화·한민호, 2007, 『공공디자인을 말한다』, 서울: 200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문화부.  
 하영미, 1996, “도시의문화적 정체성과 상징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전용 가로에 관한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09, “한국공공디자인학회 선언문”.  
 허성철·김익·홍성수, 2009, “디자인 선호이미지를 고려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감성과학』, 12(3): 331~340.  
 형성은, 2009,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이용자와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모델구축”, 『감성과학』, 12(4): 451~460.  
 황선영, 2008, “도시환경이미지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역할”, 『기초조형학연구』, 9(1): 795~803.  
 Matsuoka, R. H. and Kaplan, R., 2008, “People Needs in the Urban Landscape: Analysis of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Contribution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84: 7~19.  
 Pugalis, L., 2009, “The Culture and Economics of Urban Public Space Design: Public and Professional Perceptions”, *URBAN DESIGN International*, 14(4): 215~230.

원 고 접 수 일 : 2013년 9월 5일  
 1차심사완료일 : 2013년 10월 31일  
 2차심사완료일 : 2014년 1월 3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1월 29일